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5년 5월 16일
위원장	고영인	담당자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 (010-3906-2561)

전북으로 향한 ‘모두의나라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오늘은 현장행보

-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전주남부시장 상인회 연속 간담회,
- “소외되는 지역없는 모두의 나라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호남지역을 방문 중인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오늘(16일), 전북지역 민생현장으로 향했다. 어제(15일) 오후, 광주전남출범회의 개최로 지역일정 시작을 알린 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늘 오전,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한 고 위원장은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원호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려면 지금까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채용할당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금융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길을 열면 교육, 의료 등이 연계된 지역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영인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주남부시장 일대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오귀성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는 동안 얼어붙은 민생경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점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인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수립을 약속하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도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은 전주남부시장 일대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일정을 마친 고영인 위원장은 “모두의나라는 소외되는 계층없고, 홀대받는 지역없는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빈틈없이 듣도록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끝)

-행사사진 별첨-







